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별 편차 크다

2017년 이후 재배 면적·가입농가수 지속 증가세
감귤 37%로 저조… 감자 81%·당근 75%로 높아

태풍·폭설·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품목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내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지난 2017년 1352ha(1533농가)에서 2018년 2994ha(3088농가), 2019년 7583ha(6450농가)에 이어 2020년 12월 말 기준 9484ha(8992농가)를 나타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사업비 442억8600만원(국비 221억4300만원·지방비 155억·자부담 66억4300만원)을 투입해 재해보험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최근 농가와 가입 면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귤 등 일부 품목은 재배면적 대비 가입면적이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감귤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재배면적 5399ha에 가입면적 2005ha로 가입률은 37%에 그치고 있다. 이어 브로콜리가 재배면적 1014ha에 가입면적은 530ha로 52%, 콩은 재배면적 3316ha에 가입면적 1845ha로 56%를 나타내 절반을 조금 넘겼다.

반면 감자는 재배면적 720ha에 가입면적 580ha로 81%, 당근은 재배면적 1250ha에 가입면적 977ha로 78%를 기록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았다. 원예시설, 감귤, 콩,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2020년 12월 말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재배면적 1만6326ha에 가입면적은 9113ha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률은 56%선에 머물고 있어 홍보 강화 및 농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행정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 농가자부담 15%)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지역 대상품목은 52개로 품목마다 가입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감귤, 옥수수, 고추 등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가능시기는 품목별로 5월에서 6월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품목 재배농가는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5월~6월 기간대 가입 가능 품목은 감귤(4월 19일~5월 14일), 고추(4월 19일~5월 21일), 고구마·옥수수(4월 26일~6월 11일) 등이며, 비닐하우스 및 시설작물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 농정과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상습 정체 노형오거리 우회도로 개설한다

월광로~노형로 공사 본격

제주시 노형오거리 등 도심지 내 교통분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노형오거리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월광로와 노형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노선은 1986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노형오거리 우회도로 미개설로 도심지 내 상습 교통정체를 불러왔다. 특히 드림타워 준공으로 대체도로 확충 등 교통체계 개선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월광로~노형로 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187억원(공사비 97억원·보상비 90억원)을 투입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총 연장 920m(폭 35m) 중 노형로~우평로 구간 연장 620m를 추진하며, 월광로~우평로 300m 구간은 광령~도평 우회도로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 내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조속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백로도 쉬어가는 휴일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인근에 번식지로 이동중이던 중대백로들이 개민들레꽃밭을 찾아 잠시 휴식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신선님! 코로나19 몬딱 심어 가붑서!"

18회 방선문축제 8~9일 개최
인원 제한·비대면으로 진행

빼어난 절경으로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방선문에서 제주목사 행차 재연 등 다양한 전통행사를 선보이는 축제가 마련된다.

오는 8일, 9일 이틀간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訪仙門)에서는 '신선님! 코로나19 몬딱 심어 가붑서!'라는 주제로 제18회 방선문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방선문은 '신선이 찾는 곳'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구춘화' 무대이자 선현들의 마애명이 많이 남아있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92호로 지정됐다. 매년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절경과 참꽃이 만발한 계곡 일대에서 축제가 개최됐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오라자연문화유산보전회가 주최하고, 방선문축제위원회(위원장 문명숙)가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선문 일대에서 진출입로 방역부스 설치 등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축제 프로그램도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진행하게 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전통 제례식, 제주 목사 행차 재연, 예술단 공연 등은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대신 축제 전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방선문 장원급제' 행사의 경우 올해는 공모전 형태로 실시한다.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선문을 주제로 한 문학 백일장, 서예 휘호, 신선 그리기 3개 부문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있다.

문명숙 축제위원장은 "올해 방선문축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지만, 천혜의 아름다움과 선현들의 마애명이 즐비한 방선문을 널리 알리고 전통이 있는 축제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국가위성운영센터 제주 건립 효과 관심

항우연 "위성 운영·활용 업체 단지화 구축 가능"
지역대학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협약 체결 예정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 부지로 거론된 제주시 구좌읍 일대 도유지를 국가에 매각하는 방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센터 건립이 제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는 2022년까지 구좌읍 일대 108만6306㎡(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에 센터 건물과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다. 센터운영을 맡은 국가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앞으로 위성운영, 위성자료 수신·배포 등 국가위성통합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원 측은 "국가위성 운영담당기관 유치는 제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센터 건립으로 안테나 유지보수, 영상처리, 영상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외부업체 이전으로 위성운영·활용 업체 단지화(complex)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속시설인 위성영상 활용 연구센터를 통해 민간 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면 관련 산업 유치와 제주 위성산업이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다.

위성자료 활용을 통한 과학적 업무처리와 예산 절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현재 위성자료는 관계기관만 무상활용이 가능한데 제주 유치를 통해 무상활용의 근거가 마련되므로 위성영상 기반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도정 현안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제주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도시계획, 지적, 세무조사, 불법행위 감시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연구원 인력, 공무원 및 운영관련 회사 인력 상주에 따른 거주인구 증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개최로 제주 MICE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연구원은 우수인력 채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부미현기자

용암해수 건강 음료사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1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에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기능성 음료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6억원을 투입, (재)제주테크노파크 주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생산지원을 위한 GMP 시설 구축 ▷소재 발굴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분석장비 구축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별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능성 음료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강다혜기자

훌륭하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중앙회장님께 호소합니다

회원들의 간절한 호소를 저 버리지 마십시오

1 한*자 지부장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화 전 사무국장 입사일은 2015년 4월 초순입니다.
2017년 5월 말경에 충혼묘지에서 꽃심기 행사가 있는 날인데 단체 회원들하고 점심식사 때 지부장님이 사온 접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김*화 국장에게 접시를 던지면서 60여명이 모인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 2020년 9월 초순경에 한*자 지부장님이 임원을 소집 4명과 함께 회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5년 넘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총액을 언급하면서 2년치, 수당 및 상여금은 700만원을 받았으니 돈을 환수하라고 했으며,다음날 아침 지부장이 전화로 오늘 당장 사표를 쓰라고 하여 "지부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한*자 지부장은 도둑년~~ 강도년 등의 쌍욕을 하면서 사표를 강요하여 2020년 9월 18일 사무실(여직원)에서 만들어준 사직서에 서명한 후 사직을 하였습니다.

3 위령제 행사시 지회장님을 통해서 1인당 10만원씩 받아 가지고 지부장님께 전달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명이 없습니다. 모든 회원이 궁금해 합니다. 위령제 보조금은 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2019년 3월 8일 봉사단에서 한*자 지부장께 3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용처에 대한 보고도 없으며, 같은해 12월 26일 봉사단 모임 시 회원 식대비 100만원을 한*자 지부장이 현금을 챙기고 지부사무실 카드로 봉사단 식대를 정산하였으며, 2020년 11월 27일 봉사단 오찬 식대100만원 또한 현금으로 챙기시고 지부카드로 식대를 정산하였으며 이러한 돈을 현금으로 가져 갔으나 해명이 없는 실정입니다.

5 매년 초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 배당금500만원을 배당 받았으면서도 동 배당금에 대한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6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여섯 번씩 바뀌었는데 하물며 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도지부장은 한 사람이 30여년을 하고 있다면 회장님은 이해가 되는지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든 일반회원이든 단체를 아는 사람들은 장기집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미망인 제주도지부는 공산당이냐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회원들이 코로나19가 단계가 완화되면은 회원들을 동원하여 지부장 퇴진 집회를 할 것이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권위적인 지부장이 아니라 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며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단체 위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부장을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관철될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훌륭하신 중앙회 회장님! 회장님 계실때 제주지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전 회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2021. 4.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퇴진운동추진위원회 천 정 심 외 추진위원 일동